

# 북한, 자의적·광범위한 사형 진행 한국 드라마 유포하면 공개 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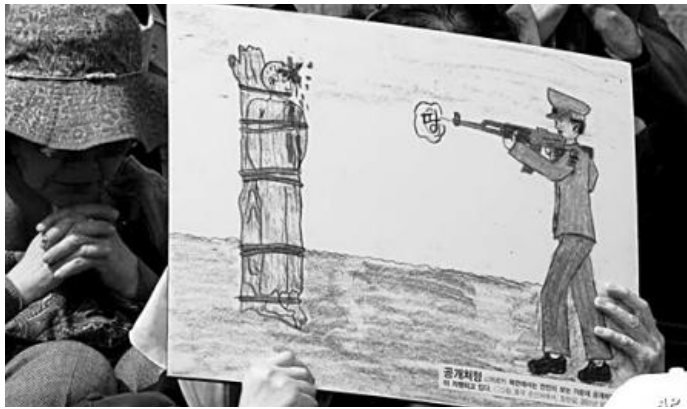
북한에서 사형이 여전히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사형에 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voakorea.com에 따르면 한국 정부 산하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20'에서 북한에서 여전히 주민들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백서는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탈북자 118명을 지난해 심층면접한 내용과 통일연구원이 입수한 북한 공식 문건, 북한이 유엔 인권 기구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백서 제작에 참여한 통일연구원 이규창 인도협력실장은 북한에서 사형이 여전히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백서는 특히 최근 몇 년 간 한국 녹화물 시청 또는



▲ 지난 2011년 4월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시위에서 한 탈북자가 공개 사형 집행 그림을 들고 있다. ©voakorea.com

유포 행위에 대한 공개처형 사례가 증가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 검찰, 노동당, 각 산하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5개 그룹을 통해 녹화물에 대한 합동 검열을 했지만 불법 시청이 증가하자 '109상무'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검열하고 있다. 특히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이른바 '적색'으로 불리는 녹화물이 적발될 경우 노동교화형 8년에서 10년까지 받는다는 증언이 있다고 백서는 밝혔다.

# 멕시코서 밀주 마시고 100명 넘게 사망

멕시코에서 최근 메탄올 등이 들어간 '불량 밀주'를 마시고 사망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멕시코 일간 레포르마는 전날 최근 2주간 멕시코 전역에서 불량 술을 마시고 사망한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중부 푸에블라주에서는 전날 장례식에서 술을 나눠마신 사람들이 두통과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다 이날까지 모두 23명이 숨졌다. 당국은 현장에서 증류주의 일종인 레피노 200ℓ를 압수해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 할리스코와 모델로스, 유카탄 등 다른 주에서도 최근 술을 마시고 사망한 사람들이 속출했다. 이들 술에는 메탄올 등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언론들은 잇단 밀주 사망 사고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연결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주류 수요는 늘었는데, 멕시코 대표 맥주인 코로나를 생산하는 그루포 모텔로와 하이네켄 멕시코가 조업을 중단하면서 편의점 등에는 맥주가 바닥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류 판매 금지령도 내려져 다른 술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밀주 소비가 늘어나면서 밀주 사고도 함께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당국은 사망 사고를 유발한 밀주 제조업자들을 추적하는 한편, 사람들에게 제조원이 불분명한 술은 마시지 말라고 당부했다.

카리브해 도미니카공화국에서도 최근 메탄올 등이 들어간 밀주 사망 사고가 잇따라 전날까지 모두 177명이 숨졌다.

# 글로벌 식량 위기 우려 확산

글로벌 식량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전 세계 식량 공급망이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이다. 식량 생산국들은 수확한 곡물을 팔지 못해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 반대로 수입해야만 하는 국가들에선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 올해 말까지 최대 30여개국 1억3000만 명이 기근에 직면하는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리프 후세인 WF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과거엔 (식량위기의) 원인이 수요나 공급 둘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엔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WSJ은 "풍성한 수확철, 가장 식량이 풍부해야 할 시기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해 식량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각국의 수출 규제, 운송 및 가공 중단 등으로 한 쪽에선 곡물이 남아 썩고 있는 반면, 다른 한 쪽에선 굶주림을 호소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을 더 큰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식량을 생산하는 국가도 수입하는 국가도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나가는 길과 들어오는 길을 모두 막아놓은 것이 식량위기 촉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여객기의 85%가 멈춰섰으며 화물항공 수송능력도 약 35% 감소했다.

베트남을 비롯해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 주요 쌀 생산국들이 지난 3월부터 쌀 수출을 중단했다. 주요 밀 수출국인 러시아도 오는 7월까지 수출을 금지했다. 이들 국가의 생산업자들은 남아도는 곡물을 창고에서 썩게 놔두거나 폐기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더 우려되는 곳은 식량이 '필요한' 쪽이다. 공급 물량이 제한되면서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솟구치고 있기 때문이다.

WSJ은 "코로나19 확산이 기존 식량 재고뿐 아니라 파종과 수확에까지 영향을 끼칠 경우 글로벌 식량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위기를 겪은 곡물 생산업자들이 다음 철 생산을 중단하거나 대폭 줄일 경우 공급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얘기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복선)/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